복지를 위한 통념에의 반란

(민27:1~11)

1.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2. 그들이 회막 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3.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4.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5.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6.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7. 슬로브핫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복지를 위한 통념에의 반란>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복지를 위한 통념에의 반란'
이 '통념'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널리 통하는 개념'이라고 사전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달리 표현해보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확신인데 예를 들어서 '콜라에 치아를 넣으면 치아가 부식하므로 콜라가 몸에 안 좋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통념이 믿음과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행1: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권능을 받고'에서 이 권능이 내게 임해야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선교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믿는 자로서의 삶이 가능하고, 권능이 없으면 믿는 자로서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 권능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앉은뱅이를 일으키고 사도 바울이 갖가지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낸 일이 권능입니까? 이것은 권능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능은 힘이고 세력이고 지배력이고 권력입니다. 예를 들어 마피아가 돈 10만 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죽

이거나 손가락 자르는 것을 쉽게 해서 아무도 마피아의 돈을 훔치려고 하지 않는데 이것이 본문에서 말한 권능이고 힘입니까?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권능은 돈을 벌게 하고 지키는 힘이 아니라 돈을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또한 질병을 고쳐서 건강하거나 지키는 힘이 아니라 건강을 이기는 힘입니다. 형통을 가져다 주는 힘이 아니라 형통을 이기는 힘입니다. 돈을 이기는 힘은 돈에 대한 통념을 이기는 힘이고, 건강을 이기는 힘은 건강과 연관되어 있는 인간세상의 통념을 이기는 힘이 권능입니다. 돈에 대해 얽혀 있는 통념은 돈이 있어야 잘 살고,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돈이 있어야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면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권능은 이 통념을 깨고 이기고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힘으로, 돈이 없어도 기쁠 수 있고 돈이 없어도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건강에 대해 얽혀 있는 통념은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 믿으면 건강을 잃어도 기쁠 수 있고 설령 건강이 망가지더라도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이 임하시며 나타나는 권능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그 가치들에 얽혀있는 보편적인 확신들을 깨고 부수고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권능이에요. 이 권능을 갖고서야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과 유일한 구원의 가능성임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구원'은 이 세상 그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나는 기쁠 수 있다는 것이 구원이고 진리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가치와 얽혀 있는 통념에 대해서 언제 어디서나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자들이라야만 예수님이 참 기쁨과 만족의 근원되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능을 가졌을 때에 세상의 가치들에 사람들이 부여하는 일반적인 통념에 대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도 모두가 다 승진에 관계되는 통념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이 통념을 깨버리고, 승진과 관계없이 나는 이미 완전히 만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자여야만 승진의 통념에 얽매인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승진이 잘 되더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팔아먹는 것이고 예수를 곡해하는 것이고 예수를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오직 승진이 전부인 직장 안에서 승진과 무관하게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건강이 최고인 병원 안에서 건강과 무관하게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돈이 최고인 장사꾼들의 모임에서 돈과 관계없이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증인으로서의 분명한 위치에 설 때에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서 나를 통해 병자를 낫게 하실 수도 있고 갖가지의 기적을 일으키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 기적의 능력자체가 증인이 되는 권능의 전제 조건은 아닌 것입니다. 권능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통념에 반란을 일으킬 수 있고 통념을 깰 수 있는 힘입니다.

오늘 본문에 므낫세 족속에 속한 슬로브핫은 죽고 그의 딸들이 나옵니다.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샤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해 들어갈 때에 이 집안에서는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가나안 정복전쟁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 없는 집안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에 열두 지파에 속한 수천, 수만의 가정마다 자신들의 기업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원칙을 세워주셨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쟁에 나가는 남자들의 이름을 기본 자료로 해서 땅을 분배하는 원칙이 만들어지고 나니 이 슬로브핫이 죽은 뒤에 남은 다섯 명의 딸들은 가나안 땅에서 자기 집안에 땅을 분배받을 가능성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의 대표자들이 모인 가운데서 자기들의 땅 분배를 정당한 권리로 모세에게 요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 딸들의 요구에 대해서 기꺼이 허락을 하시면서 반드시 그들의 요구대로 땅을 분배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인데 참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그냥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이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들을 위한 약속된 기업을 준비해주셔서 상속법상 획기적인 법적 발전을 이룬 것이 초점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슬로브핫의 딸들이 나와서 자기들에게도 땅을 분배해달라고 모세에게 요청하는 이 상황이 보통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자들은 남자들이라도 땅 분배는 여자들의 이름까지도 포함시켜야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의 사회분위기에서 여자는 심지어 재산의 하나로 여겨지는 상황이었고, 백성을 계수할 때에 여자의 수를 세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예수님 때까지도 이어져서 오병이어 때에도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 남자만 오천 명이었다고 계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땅 분배의 원칙까지도 결정하신 후였음에도 불구하고 온 회중의 대표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딸 다섯이 나와서 모세에게 땅을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 일인지 상상이 가십니까?

오늘 본문을 읽다보면 다섯 딸들이 모세에게 땅 분배를 요청할 때에 뜬금없이 고라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고라'는 여러 무리들을 영합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나와서 '왜 너희들만 지도적인 위치에 서 있느냐?'고 반란을 일으킨 자들이고 이 고라의 반란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권속들 전체를 장막 앞에 세우시고 회중들이 보는 가운데 땅이 갈라져서 삼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선민들 안에서 일어난 엄청난 반란 사건이었는데 슬로브핫 딸들이 그 고라의 이름을 거명을 하는데 그 이유는, 누가 보더라도 모세와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모든 회중의 대표들이 보는 가운데 여자들이 재산의 하나로 여겨지고 백성의 수를 계수할 때 그 수에 들지도 못했던 상황에서,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인 모세의 입을 통해서 땅 분배의 원칙을 20세 이상의 남자로 계수된 데이터를 근거로 제비뽑기 원칙을 세우신 후에, 딸들만 있는 우리 집에도 땅을 분배해달라고 하는 것은 시대 정황과 이러한 시점에서 고라의 반란과 같이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을 그 딸들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영도력에 대한 반란이고 여호와에 대한 명을 거스르는 반란으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시대적 통념에 반하기에 같은 여자 입장에서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행동이었고, 사회의 눈이 자기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라와 자기들을 분리시킨 것이었고 통념에 반란을 일으킨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고라의 반란 때와는 정반대로 기뻐하시면서 반드시 그들의 요청대로 땅을 허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다른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확정된 성문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좀 더 실감나게 이해하면, 이 슬로브핫의 다섯 딸들이 복지를 위해서 통념에 반란을 일으킨 것인데 이 사건이 고라의 반란과 다른 점은 바로 앞장에 있습니다.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1차 계수 때에 계수 된 2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남자가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고,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슬로브핫의 딸들의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영적으로 슬로브핫의 다섯 딸과 갈렙과 여호수아가 같은 맥락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같습니까? 열 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철기 문화를 앞세워서 이미 국가체제를 완비한 강한 족속들입니다. 거기에는 자신들이 메뚜기처럼 여겨진다는 비유가 합당할 정도의 거인 족속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눈에 보이는 현상에 대한 일반적인 사회통념을 따르자면 이스라엘은 메뚜기이고 이들은 거인들입니다. 열 명의 정탐꾼이 사회적 통념을 따라가고 당연한 세상적인 객관적 데이터로 백성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회적 통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내 것이 되는 것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내 것이 되는 것은 이 땅에서 가나안 족속이라는 방해물 때문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나안 복지를 주시려고 마음먹으셨다면 이 세상의 어떤 조건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열 명의 정탐꾼들의 통념에 따라 해석한 통념에 정면으로 충돌하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며 반란을 일으킨 것

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마음에 담아서 출발했기 때문인데 슬로브핫의 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똑같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이름으로 계수된 근거로 땅을 분배하시지만, 그러나 남자들만을 염두에 두시고 가나안을 주시려는 게 아니고 그 땅을 누리게 될 모든 여자와 모든 노인과 모든 어린이들을 다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선민이라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각자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지의 삶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마음이 먼저 접촉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물건에 지나지 않고 계수에 들지 않는다는 통념에 저항하고 정면으로 부딪혀 반란을 일으켰는데 모세와 온 회중의 대표들이 나와 있는 가운데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고라의 반란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는 일을 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엄청나게 무서워서 떨었을 것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것은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선민으로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의 죽음이 언제나 나의 죽음임을 기꺼이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복지를 준비해두고 계신다는 것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결정하셨고 약속하신 복지를 어떻게 실제로 누릴 수 있습니까? 반드시 넘어야 하는 산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슬로브핫의 다섯 딸들처럼 통념에 반란을 일으킬 수 있어야 합니다. '통념에 반란을 일으킨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돈이 없으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통념이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확신인데 이 확신에 반란을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쁘고 만족하고 감사한 것은 사회적 통념대로 돈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감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다.'라는 것이라고 반란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 반란이 없으면 복지는 내 것이 안 되는데 이 세상의 가치에 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권능인 힘은 자기 돈 십만 불을 떼어 먹은 마약쟁이를 쫓아가서 총으로 죽이고 돈을 뺏어오는 마피아가 힘이 센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까지 해야 하는 마피아는 돈의 졸개입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도 이미 행복할 수 있고 기쁠 수 있다면 이것이 돈을 이기는 진짜 권능이고 힘입니다. 돈을 빼앗기 위해서 서로 사람을 죽이면서 힘이 센 것은 돈의 졸개 중의 졸개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온갖 짓을 다하는 것이 힘이 아니라 건강이 있거나 없거나 내 기쁨은 하늘에 저장되어 있다고 믿는 것이 힘인 것입니다. 승진과 형통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통념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복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지는 우리가 인격체이기 때문에 로봇에게 주어지듯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통념에 반란을 일으킬 수 있을 때에 통념 언덕너머에 있는 복지가 우리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고 귀에 들리는 세상의 현실보다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접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삶의 현실은 열악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무관하게 감사와 기쁨과 만족이 넘치는 삶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느낄 때에, 슬로브핫의 딸들처럼 고라의 반란으로 보일 수 있을 정도의 위험천만한 일도 능히 감행하면서 자기의 복지를 쟁취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열 명의 정탐꾼들과 250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통념적으로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았던 이 통념의 거미줄을 넘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과 마음이 접촉되어서 통념을 깨고 나가면서 복지를 쟁취하는 것입니다.

복지는 현재 내게 주어져 있는 삶의 조건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일을 하다가 고리대금업자로부터 일수 돈을 빌려 써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 복음을 알았습니다. 우선 고리대금업자들에게 쫓기는 상황일지라도 어디 숨어서 일단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접촉할 수 있도록 고리대금업자에게 쫓기는 그 상황에 대해서 십자가 붙잡고 죽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메꾸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우선 죽고 보는 겁니다. 건강이 안 좋습니까? 자녀들이 문제입니까? 승진이 내일 모레인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까? 십자가 생활화로 다 죽어서 우선 마음이 하나님과 접촉하세요. 그러면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동안에 절대적인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지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살전5:16~18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 쉬지 말고 기도하라 /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하시고, 렘29:11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통념은 내 삶의 조건을 자꾸 들쑤시며 ‘무슨 복지가 주어질 수 있느냐’고 이야기합니다. ‘네 삶의 조건이 그 모양 그 꼴인데 무슨 복지가 주어질 수가 있다고 하느냐’라고 하는데 이 통념에 정면으로 부딪치세요. 슬로브핫의 딸들이 여자가 무슨 복지를 얻는데 참여하느냐고 말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여자라는 통념에 부딪혀 복지를 쟁취하듯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마땅히 가나안 족속의 발전된 문명 앞에서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통념을 들이받고 복지를 쟁취하듯이 우리가 들이받고 이겨야 할 것은 통념입니다. 사회의 통념에 반란을 일으키시고 여러분을 위해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이심전심이 되어서 능히 하나님의 마음에 붙잡혀 가나안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 오늘도 언제 어디서나 십자가를 생활화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슬로브핫의 딸들이 일으키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으킨 통념을 향한 반란처럼, 오늘도 십자가를 생활화하여 마음이 하나님께 접촉됨으로 그 지점으로부터 세상을 향해 나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